

## 전라도의 혼인식(婚姻式)

전라도 결혼 풍속을 쓰라는 부탁이나 같은 전라도라도 지방에 따라, 그리고 각 읍에 따라 다르므로 어느 것을 전라도 독특한 결혼식이라고 내놓기가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필자가 타도의 결혼식에 정통치 못하니 전라도에서 행해지는 결혼식 중에서 어느 것이 전라도 독특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나는 다만 전라도 중등계급 이상에서 많이 행해지는 결혼식을 한 가지 적어 그것이 타도의 결혼식과의 상이점은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 ○ 식 장

신부집 마당

### ○ 식장 설비

문 앞에 대(竹)와 소나무 가지와 혹은 동백나무 가지를 꽂는다(대나 소나무, 동백꽃은 서로 절개(절조)를 굳게 지키자는 뜻이다). 마당에는 덕석을 깔고, 차일을 치고, 차일 밑에다 동뢰상(同牢床)을 차린다.

동뢰상 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오른다. 술잔 두 벌, 그 술잔에는 각각 청사, 홍사를 매어 둔다.

### ○ 술안주

잡곡 혹은 명씨(稱稱)를 담은 말[나](결혼 후에 농사지를 밭전을 상징한 것이다), 그 위에다 술과 대를 혹은 생화를 꽂는다. 동뢰상 밑에는 꿩이나 닭을 자웅을 묶어 놓는다(봉황을 대신해서 놓은 것으로 봉황처럼 부부 화합 하자는 뜻이다).

이상 것은 전부 신부집에서 준비한다. 이외에 신랑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함이 있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이 든다. 콩, 팥, 명(한 송이에 새가 일곱 개 박힌 것으로)고치, 숯(젓아들 나서 금줄 칠 때 쓰자는 깃주머니를 씻이나, 다섯이나, 일곱이나, 기수로(이 주머니를 아들 못 낳는 여자가 가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청치마감 한 갑, 홍치마감 한 갑(청치마감은 청보를 싼고, 다시 홍보는 청사로 청보는 홍사로 맨다).

이외에 결혼식에 쓸 신부의 족두리, 원삼, 용잠, 땡기 등을 넣기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선사할 물품의 목록을 적어 넣기도 한다.

함 외에 또 신랑이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나무로 만든 기러기가 있다. 기러기는 암놈이나 수놈이나 한편이 죽으면 절대로 다시 짝 놀과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정조를 지킨다고 한다.

### ○ 식차

신랑집과 신부집이 가까운 때에는 신랑이 결혼식 당일에 자기 집에서 출발하여 신부집으로 가나, 그렇지 않고 원거리인 때에는 결혼식 전날에 신부 사는 동리로 가서 그 이웃에 사치를 정하고 유한다. 결혼식 날 신랑이 아직 신부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랑 측에서 얼굴에 꺼먼 칠을 한 중방쟁이(혹은 함진 애비)에게 함을 지워서 신부집으로 보낸다. 이 함을 지는 질빵은 굵지 않은 은필베로 만드는데, 이것은 중방쟁이 소유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함을 가져가면 신부집에서 한임(여자)들이 나

와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는 신랑이 목안을 안고,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집 마당으로 들어가 동뢰상 앞으로 가 목안은 상 위에다 놓고 동향을 하고 선다. 그 대로 신부가 원삼 족두리에 용잠을 찌르고 한임 두 사람에게 부축되어 나와 동뢰상을 끼고 신랑과 맞선다. 이에 신랑은 다시 신부 쪽을 향하고 신랑 2배(拜), 신부 4배를 한다(혹은 신랑 1배, 신부 2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술잔을 건넨다.

이것으로 의식은 끝나고 각각 방으로 들어가 신랑과 상좌 앞에는 큰 상이 나오고, 안방 신부 있는 편에서는 함을 연다. 이때 아들 못 낳은 여인네들은 함 속에 든 주머니를 뺏으려고 한판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또 신부 이마에 빨간 종이로 올려 붙였던 끈지를 떼어 문지방 위에다 떼어 붙인다. 이것은 남편을 사람들이 우러러보아 귀하게 되라는 뜻이다. 그리고 신부가 끈지를 붙이게 된 것은 어떤 색시가 이마에 홍이 있어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결혼식 날 이마에 빨간 칠을 하여 그 홍을 감추었다는 이야기에서 시초된 것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먹고, 마시고, 쑥덕이고, 흥보고, 재잘거리고 하는 동안에 밤이 되면 신방을 차려 신랑 신부가 비로소 한방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나 동리 사람들은 그 속을 엿보려고 문 뒤에 가 숨는다, 문구멍을 뚫는다, 야단들이 난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의 무슨 옷을 먼저 벗기나, 윗목에 차려 놓은 술상에서 무엇을 먼저 먹나, 그리고 불은 무엇으로 끄나를 보아 그들의 장래를 점치려는 것이라고 한다.

신랑이 신부 저고리를 먼저 벗겨주면 아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비녀를 먼저 빼어주면 머리를 쥐고 아내를 학대를 하고, 밤을 먼저 먹으면 첫애에 아들을 낳고, 대추를 먼저 먹으면 딸을 낳고, 불을 손으로 나 이불자락으로 끄지 않고 입으로 끄면 복을 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신방을 엿보는 것은 이것 때문보다도 처음 만나는 신랑 신부의 붙이는 수작을 구경하자는 호기심에서 더 그러는 것일 것이다. 그리하여 조혼이 많던 옛날에는 10여 세밖에 안 되는 신랑이 자기보다 흔히 6, 7세나 더 되는 신부에게 이름이 무어나, 나이가 몇이나 하고 심문을 하여, 또는 대님을 풀어라, 버선을 벗겨라, 술을 따라라 하고 달구는 감탄할 광경도 구경할 수가 있었으며, 나이 어린 신랑이 어머니 뺨이나 된 늙은 신부가 무서워 윗목에 가 부들부들 떨고 앉았다 그대로 쓰러져 자는 것을 신부가 아랫목으로 안아다 재우는 우습고도 기막히는 광경도 구경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신방을 엿보는 풍습의 기원을 이 조혼의 풍속에서 찾는 사람도 있다.

조혼이 심하던 옛날에는 과년한 색시가 정부(중이 많다)를 두어 첫날 밤에 나이 어린 신랑을 죽여 버리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서 신방을 엿보는 것은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방을 경계하던 풍습이 남은 것이라고.

《여성》, 3권 11호, 1938. 11. 1)